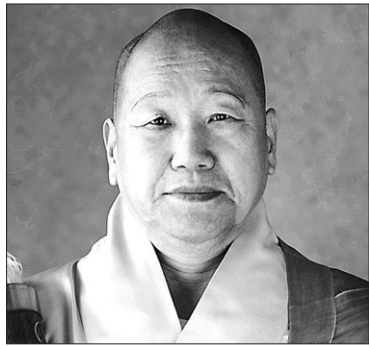


“一句를 타파해 바른 안목 열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상략〉 癸巳年계사년 夏安居하안거 解制해제를 맞아 八公山 桐華叢林이 開院됨으로 인해서 佛法門中이 圓融和合원융화합한 가운데 더욱 隆盛웅성할 것이요, 佛教 中興과 世界平和에 크게 貢獻공헌하게 될 것이니, 모든 四部大衆과 萬人에게 더 없는 祝福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 널리 應하고 前後에 어긋남이 없어서 各各現成현성이라. 〈중략〉

昔日에 雲門禪師께서 大衆에게 三轉語 삼전어 法門을 내려 지도하시기를,

- 一, 如何是道(여하시도)닛고
- 二, 如何是提婆宗(여하시제바종)이닛고
- 三, 如何是吹毛劍(여하시취모검)이닛고

이러한 法門 등으로써 後學들을 提接제 접하였습시다.

이에 앞으로 八公山 桐華叢林의 모든 方丈스님네들도 이러한 法門 등으로 工夫人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諸方의 모든 공부인은 이러한 田地를 透得투득해야만 參學參학사를 마칩시오, 一方之師가 되어 만인의 바른 眼目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책을 두지 않음이라.

어느 때는 丈六金身장육금신을 가져서 한 줄기 풀을 지어 쓰며, 어느 때는 한 줄기 풀을 가져서 丈六金身을 지어 씹이로다. 吹毛劍취모검이 손에 있음에 죽이고 살리는 때에 당하여 죽는 가운데 삶을 얻고, 삶 가운데 죽음을 얻어야만 온 몸을 굴러 自在함이로다.

自家의 보배를 運出운출하여 높고 낮음

“마음 통찰하면 본각으로 돌아간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계사년 하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여 선사가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삼천년 전 영산회상에서 사자후(獅子吼)한 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어느 객승이 ‘큰상 위에도 구슬을 하나 떨어뜨리고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그 모습을 본 선사는 빙그레 미소 지은 후 법상에서 내려 오셨습시다.



보고 마음을 밝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리와 모습이란 다름 아닌 자연의 소리와 모습을 뜻합니다.

자연은 우주만물의 원초적 고향이며, 마음이란 그 원천의 이치를 깨친 일심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자연과 합일하는 참나에 일심이 되어 그 근본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 원효스님이 말한 깨침의 본체로서 일심이며, 평등무이(平等無二)의 실재일 뿐만 아니라 생동하는 각(覺)의 주체로서, 절대 무집착의 대지혜와 절대무애(絶對無礙)의 대자비행을 일으키는 여래의 청정법신(淸淨法身)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미립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지만 분리가 아닌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우주만물이 하나의 궁극적인 에너지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통일장이론물리학에서 우주의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힘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일심원(歸一心源)을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고, 무애행을 실천함으로써, 때사에 당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략〉

수수·불수수, 두 방편 갖추라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상략〉 원오극근 선사가 말했습니다.

“동산양개 선사 문하에서는 차별된 두 가지 수법이 있다. 출세(出世)와 불출세(不出世) 즉 세간으로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 또 수수(垂手)와 불수수(不垂手) 즉 방편으로 손을 드리웠는지 아예 거두었는지를 동시에 말했다. 세간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하늘만 응시하면 되겠지만, 세상에 나타날 경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얼굴에 흙을 묻히게 될 것이다.”

〈중략〉 역대 모든 선지식들이 더위의 안팎에서 두 번 손을 뻗은 까닭은 하안거 대중들의 눈이 가로로 붙어 있고 코는 세



로로 곧게 뻗어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방편은 수수(垂手)요, 종지는 불수수(不垂手)입니다. 하지만 종지는 방편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고, 방편은 종지로 인하여 제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수수’와 ‘불수수’는 결코 둘이 아닌 것입니다. 총림의 해제대중은 ‘수수’와 ‘불수수’라는 불이(不二)의 두 가지 방편을 동시에 갖추고서 해제길을 나설 때 이것이 야말로 제대로 된 해제라고 할 것입니다.

〈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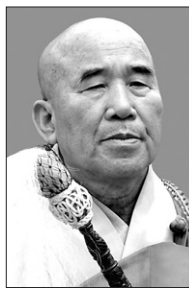
“화두 일념이 고단한 몸과 마음 이겨냈는가”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금설안중예(金屑眼中塵) 여의주법상진(衣珠法上塵)이라 기령유부중(己靈猶不重) 이어늘 불시위하인(佛視爲何人) 이리오

모든가 생각을 판가름한다는 각오로 폭염의 여름 한 철과 씨름을 했습니다. 화두의 일념이 과연 고단한 몸과 마음을 이겨 내었습니까?

지금 안거를 마친 대중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계에도 걸리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부처의 경계가 나타났다고 해도 거기에 집착하면 병입니다.



그 한 물건조차도 고귀하게 여길게 없거늘 하물며 자신의 부처를 보아서 누구를 위하려고 하느냐고 고덕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경계에도 걸리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부처의 경계가 나타났다고 해도 거기에 집착하면 병입니다.

지금 안거를 마친 대중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계에도 걸리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부처의 경계가 나타났다고 해도 거기에 집착하면 병입니다.

“지금 여기서 화중생련을 친견하십시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여러분들은 모두 승패 없는 전쟁을 한 바탕 치렀을 것입니다. 울여름은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럴 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맑은 정신 차리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며, 내가 나를 스스로 저울대질을 해봤을 것입니다.

화중생련(火中生蓮)이라. 불꽃 피는 데서 아름다운 연꽃을 발명한다하였습니다. 발명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밖에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고달롭습니다. 신도들은 절에 가서 공양도 올리고 불사를 도와줘야하는데 어쩌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장전에서는 “지장보살, 지장보살”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무슨 힘입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화중생련을 친견하십시오. 〈중략〉

오늘날 우리는 과연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제자로서 출가한 본래 뜻을 항상 굳세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잊지 않고 되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략〉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금정총림 방장 자유 스님

오늘은 바로 하안거 해제하고 석 달이 지난 해제날입니다. 그동안 각각의 수행 방법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 길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많이 나아졌습니까? 마음을 보기 위해 발잡을 세워가며 수행한 것일진대, 마음이 바르고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졌을 것이고, 괴로움이 사라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만 보내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에서 아직도 해매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마음자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몸은 인연에 따라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지만, 근본자리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략〉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밟고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 들고, 늙고 죽는다는 좌각을 벗어나, 나고 죽는 것이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마음 자리를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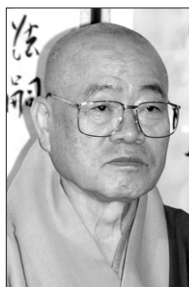
만길 절벽 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라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삼계의 미묘한 모든 중생이 윤회를 쉬지 않고 자주 오르고 잠김이로다. 한 생각 몰록 깨달아 능히 구제해서 자타가 한가지로 무상각을 이룸이로다.

감히 대중에게 문노니 만 길의 절벽 위에서 다시 한걸음 나아가야사 바야흐로 향상일로에 이르며 장부 가운데 대장부요. 또한 이르되 해제니 만약 이 속에 이른 자 일진된 속히 한마디 일러라.

잠깐 있다가 ‘할’을 한번하고 이르되, 만약 한마디 이르지 못할진대 이를 어찌 해제라 하리오. 바위돌이 응으로 화하



고 마른 고목나무에 꽃이 피어야사 옳다.

계승으로 이르되, 초목이 빛을 받으니 보배 아님이 없고, 바위돌이 눈을 뜨니 다 부처와 조사로다.

또, 행주좌와에 마음이 한결같아서 남으로가고 북으로 감에 잡념이 없으면 한 생각 즉하여 정각을 이루어서 자신도 제도하고 다른 이도 제도해서 국토를 청정케 하리라.

생각마다 현세불 출현이요 걸음마다 미래불 출현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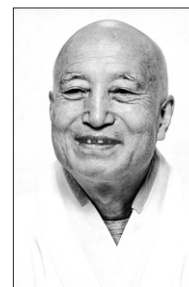
진정한 정법은 보고 들을 수 없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천관이 타파되고 지축이 뒤엎어져 명과 암이 철저히 부러진 지도는 따로 셋길이 없다.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기가 어렵다.

진정한 정법은 보고 들을 수가 없으며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정법을 이야기 해봐도 그 이야기 속에 이미 정법이 없기 때문이다.

향상일구인 정법은 이야기가 아니며, 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다. 정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되지 않는다. 표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의



묘(妙)가 아닌가. 〈중략〉 이러한 경지야말로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 되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일한 자취가 없고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말 한마디 한 일이 없어서 일체(一切)에 무애(無礙)하고 생활(殺活)이 자재(自在)한 것이다.

승가가 정진에 소홀하고 무능과 무지, 무사, 무모로 방일한다면 네 가지 은혜를 저버린 죄가 크리니 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과 나를 향한 아름다운 회향

조계종 신도등록이 그 첫걸음입니다

중단 신도등록은 불자로서의 의무이자 자긍심을 갖는 계기입니다.

- 재적사찰에 신도등록을 해주시고 매년 신도교무금
- 1만원을 납부하셔야 협약된 종합병원, 숙박시설, 용품점 등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하신 신도교무금은 중단과 사찰발전을 위한 포교기금으로 쓰이며 신도여러분에게 회향됩니다.

▶ www.신도멤버십.kr에서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문의 02-2011-1996